

國立圖書館

27.11.1

10月27日(水)

1952年(昭和27年)

發行所 基督教新報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2623番

編集兼發行人吳允台 主筆 華田榮澤



聖句

나는 말을 전
파하라 새를 얻
지 못 얻던지 상
상 삼쁘라。
다모데후서四章2節

大韓基督教總會(在日
總會)의 제 8 회
총회는 지난 10월 14일 오
전 11시에 대판교회에서 열
린바 카나님의 축복을 받아
서 다음날인 15일 오후 6
시에 무사히 개회했다.
동정을 비롯하여 「구
마오도(熊本)」에 이르기까지
일본 각지에 흩어져있는 각
교회에서 온 총회가 소수를
배한 외계 「기원전」이 출
하여 일전에 한권씩은 기
에 「리운」 열을 대하
기 우전 감사한 일이요

在日大韓基督教總會
第八回總會를 마치고

회의는 예정대로 아니 예
상이상으로 원만하게 진행하
여 제정한 시간에 폐회하게
되었다는 것은 더욱 다행이요
감사한 일이다.
△ 우리의 총회는 그 회현수
로 보아서 30에도 차지 못
하는 적은 수차요 인간적으
로 보아서 그리 빛나고 불
륜한 사람들과 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상은 일본에
六十萬 동포를 평정의 길에
인도하였다는 충실한 진의를
가진 경제의 봉사들이다. 그

祖國統一을祈願하며
第八回定期總會修了

總會長에趙淇善牧師

開會禮拜

開會禮拜는 광명군수사 사회로
三十二號 11월을 푸르고 도
전복사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사도전복사(19)의 설을 봉독
한후 오윤의목사의
「목사의 원기와 같은 길로가
있을후」이 총현목사의 「수」으로
영국한 성찬식이 집행되었고
제1회송영가 축도가 있었다.
開會式은 전영목목사 사
회로 二四四號 11월을 푸르고
간영준 목사의 기도가 있을후
오회장의 폐회사에 따라 회
정명을 하니 출석 211명이
시간과지 참석대한 총대 11명이
있었다 성원수가림으로 폐회가
전진되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총회장

新人會員歡迎會

오후 1시에 대판교회에서
「신」을 환영하는 기도로
회하여 신임회원 환영을하였다
(1)가나나 장로회의 호의로 새
일본 한국 선교사에 파견한
어은 단 파우렌 목사에게 조
채숙장으로 관을 증정하였고
유석준장로의 환영사와 파우
렌 목사의 환영사를 낭독하였
다.
前會會錄及各部報告

前會會錄及各部報告

회의 순서를 협의한바 임원
선을 먼저한후 현의안을 토의
하기로하고 전회회의록을 낭
독하고 회개요고는 이점일
유시

리고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천국운동에 있어
서 한 동지요 같은 군사이
매 본래 그 마음이 같리거
나 할지름이 들릴리가 있을
수없는 바이나 그러나 유
일한 것은 인간이 모이는 일
이라 약간의 마찰이나 어지
러움도 예상될수도 있지만
처음 개회하는 순간부터 새
김원 선거와 각국(各局)의
보고와 「문」 현의안 토의와
마지막 폐회 예배를 보기까
지 하나도 빠지고 막히는
일이 없이 진행되고 원만히
끝났을 뿐만 아니라 「기」가
충만하여 참으로 「기」족적인
일이 동포하였다는 것은 오
늘날에 거설어진 시대 연성
에 있어서 로기 드문 환갑

各都報告

한 회성장으로 감사로 택하
여 조사한후 보고하게 하였다
「전」에 대한 성과와
현안한 해월에 노역한 흔적
이 간단한 문자로 표시되었
다. 특히 「전」에 대한
개 육기할 사항은 카나나장

各都報告

「전」에 대한 성과와
현안한 해월에 노역한 흔적
이 간단한 문자로 표시되었
다. 특히 「전」에 대한
개 육기할 사항은 카나나장

前總會長吳允台牧師
總務局長被任



오윤래 목사

의 선배들은 二十九年 七月 廿九日 吳允台牧師가 總務局長에 被任된 것을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吳牧師는 前總會長으로 在任中 總務局長에 被任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吳牧師는 前總會長으로 在任中 總務局長에 被任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總會長再選을 制禦

青年·婦女局新設

임원대선전에 관하여 지방회에서는 吳允台牧師가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을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吳牧師는 前總會長으로 在任中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吳牧師는 前總會長으로 在任中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조기선 목사

신도들은 吳牧師가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을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吳牧師는 前總會長으로 在任中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吳牧師는 前總會長으로 在任中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祖國敎界和平을 催促코
獻議案討議慎重進行

各部報告

신도들은 吳牧師가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을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吳牧師는 前總會長으로 在任中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吳牧師는 前總會長으로 在任中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成丁萬牧師按手式

成丁萬牧師가 按手式을 행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成丁萬牧師는 前總會長으로 在任中 按手式을 행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成丁萬牧師는 前總會長으로 在任中 按手式을 행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밤續會는 성경만찬의 一環

밤續會는 성경만찬의 一環으로 行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밤續會는 성경만찬의 一環으로 行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밤續會는 성경만찬의 一環으로 行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問題無難히 通過

傍聽人을 制限 問題無難히 通過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傍聽人을 制限 問題無難히 通過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傍聽人을 制限 問題無難히 通過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公告

公告 本會第八屆總會에서 吳允台牧師가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을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吳牧師는 前總會長으로 在任中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吳牧師는 前總會長으로 在任中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望臺聲

公告 本會第八屆總會에서 吳允台牧師가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을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吳牧師는 前總會長으로 在任中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吳牧師는 前總會長으로 在任中 總會長으로 再選된 것은 喜하는 것은 當然의 일이다.

在美僑胞는信仰의後裔

自由를찾고眞理에寓居

歸國하는全博士談

이국에 五년간 유학하고 귀국하는 全博士는 "영국은 세계 각국에 미미한 당을 점령함으로써 해치지 아니하는 나라이고 하나 우라 민족은 자연적으로 세계 각국에 발전하여 이국에도 현제 一萬八千名가량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하며 그들은 "학자의 정력으로 계획적이며 인이 아니었고 자유를 찾고 지식에 공주의 진리관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 실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슴치 이국으로 건너 가게 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 우리 민족이 많이가게 된 것은 약 10년전 일이라고 한다. 아세아의 다른 민족들은 계획적인 사업에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우리 동포들은 그리 많은 수자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아서 최근에는 학생들의 도미하는 것이 많고 四五十년 전에는 亡命의과 종교가가 많았다. 학생은 진리를 탐구하여 만평창작을 하고 양영역은 조국이 정처적 자유를 빼앗긴 후 국내에서 억압에 못내디어 자유의 땅을 찾아 조국 광복의날을 기다린 이들과 기독교 신앙으로 호소에 끌기 때문에 건너갔다가 머무른 이들이었다

美國人民의責任感

미국 기독교자들의 최근의 모습은 말하라면 고민하는 체제교회를 절망진감이 있다. 저들이 물질문명이 발달된 혜택으로 유혹하 사는 것 같으나 그렇다고 도 볼수 있는면이 있기도 하지 않는 그런면뿐은 아니다. 고민하는 세계민족과 함께 살자는 것이 그들의 기독교 윤리에서 나오는 심정이다. 그들은 거액

到處에教會設立

아세아의 민족중에 일본인은 불교신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한국인은 얼마전까지는 신앙적

信仰職制會議報告

(6)

오늘은 서기국 신문관에서 작성한 교회전세의 총괄적 요령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그내용의 『요지』를 소개하겠읍니다. 문도회의는 세계공동교회운동(世界公同教會運動)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 사실은 금후 十年二十年百年을 두고 평가할바가 있을것이다. 대회의성과를 살피면 대다음의 몇점을 지적할수 있다. (一) 전 세계 백여교회의 대표二百三十名이 二주간이라는 장기간회의에 피사 그리스도 안에서

의 하나의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실제화할가하는 문제를 흥미를 더러놓고 이야기할수 있었다는 그것부터 교회역사에 빛나는 사실이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안에 일치(一致) 즉 하나이 되라는 진리가 가르쳐는바를 다한 한 번 좌중된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일이다. (二) 각국 각민족의 각이한 사정속에서 목회자는 어떻게 신학적 투쟁을 하여왔으며 신학자는 어떤 연구들 치중하였던

가을 피차 로모하였는게 이 사실은 금후 세계교회 지도에 크나큰 공헌이 될것이다. (三) 각국 대표들은 교회의 본질이나 활동이란 것이 순수한 신학적 견인(原因)에서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알게되었다. 다시 말한다면 역사상의 우연한 사건이 본질과 활동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본래에서지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형의를 진행하는중에서 제와 여러했던 문제는 성직제도와 성제전에 관한점이 었는데 이것에는 일치한 결론적 견해를 얻지 못하였다.

(四) 이번 회의의 특장은 토론방법을 형식화하는 경향에서 전저서 「전십의 본질상래를 스사로의 죄(罪)로 인정하고 하나님앞에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주안에서 하나이되자」는 데서 가식(假飾) 없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고로 각대표는 형식적 각국 실정보고만으로 반성점토한것이 아니라 미래에 크나큰 회개를 가지고 형의를 진행시켰던 것이다. (五) 과거의 신앙적제회의는 일반교회와는 유리하여 학적연구를 하여온 감(感)이 없지 아니하나 금번회의는 보고결의서결에도 영연한대로 형의된 사실을 온 세계교회에 알리고

모인다. 산루안시스코에는 대상하는 동포들을 비롯하여 三十名대의 신도가 모이는 교회가 있다. 목사는 김하려이다. 일한동포는 약 100名이 우거하고있으나 시카고에는 약 一千名의 교포가 있는데 주은목사의 임한 교회에 五十名명의 집회가 계속된다. 뉴-욕은 정치의 도움으로 세계에 알려지고 있으나 또한 학도(學道)이기도하다. 主日學會에는 한국교회에 100名대의 학생도가 모이고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는 최근에 시작된 교회에 二十名명의 형제가 모인다. 로스몬에는 약 30명의 교포가 있는데 교회는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았으나 불현에 설립될것이다. 이같이 종교적인 면에는 다민족보다 못하지 아니한것이 있으나 전서도 그 반면에 정치적인 문제가 차츰 심각하여 저같은 등한시 할수없는 사실이다.

瀬戸内海孤島

福音을지

간서지발회 전도부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김원치 목사와 박두선전도사를 시고부(四國)에 파견하여 순회전도를 하였는데 전도자들의 현지 보고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세도나이가이(瀬戸内海) 연안선을 타고 오시마



讀

니가. 빈적이니 동무가 마음
에 여려가지 근심스러운
이 있어서 낙심하여 술과
때에 곁에서 찬송을 불러
드리면 큰 위로가 되는것이
니가.

에 무엇을 하여야 할지 한성하
고 하나님앞에 올바른 인간
모습을 가져야 할줄안다. 우리
민족앞에 요구되는 문제도 이
세계적인 인간성을 바로 찾
는 길인줄안다.

고
四國
까지

세이소(三所)경(大島青松園) 나병
원(院)을 쌓았다. 이바카우에서 네
달(月) 지중해(地中海)의 갈파(加
파)에치고 구부(鳩夫) 물(物) 항하(行
하) 바올사(巴爾沙)의 님(尼) 알(兒)
우리(我) 가는 세이소(三所)영(青
松園)은 국립병원(國立醫院)에 약
百名의 다병환자(多病患者) 九十名의

그 심현에 노력하는 것이었다. 먼저 『신도』는 교회회의 할일(會事)을 바라거든 스스로가 그 그리스도와 화합일치하라 그것이 세계교회의 실천의 제일보(第一步)라고 강조한 것이다.

어상이 이번대회의 총괄적 의령이 되었음은 수사의 보고문을 읽어 보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 그리스도안에서 같은 주의 사람들을 받으면서 실제면에서 많은 오해를 이르게 하였을고 배하고 주안에서 하나의 되는 신리를 확신하고 그 심현에 스스로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 공회의 당면과제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간논지(藏論集) 제
을 방문하였다. 이곳에는 서설
교회 사경회에서 신앙부흥을
받고 와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있는 여신도 한분이있다.
그의 집에서 집회를 하였는데
男子四名 女子六名이
주일이면 十여명이 주일학생집
회도 있다하니 사도시대의
디아콜 생각하게 되었다.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최君은 왔다고 보니 마즈야마
城南中學의 나의 후배였다. 최君
은 어머니와 동생과 세사람이
살고 있는데 신앙이 돈독하여
교회와 이웃과 부락에 모범을
끼친다고 한다.

다음날은 마쓰야마市를 방문하였다. 마쓰야마는 나의 중한 요시대를 길러준 곳으로 지금도 고향 같은 나을 진정. 로 영정하여주는 것 같았다. 이곳에는 이원길이라는 형제가 있다. 그는 현재 마쓰야마교회(日本敎會) 독실한 자며 착실한 실업가인데 당에서 전도집회를 열었다. 전석에는 십여명의 형제들이 서하였는데 이원길 형제의 구지리(舊地)라는 이와 柳모라는 형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여 영광을 들었다. 지체(地體)는 京都大學出身인 현자(現者)로서 이지방에서 교포들의 이득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한

다. 오직 이 법에만 느낀 것 같
 아나. 속삭음이 이루어졌었는나
 열군의 부부하나는 사실이었던
 니가. **자**
兒童劇
크리쓰머스
 학정 열세살 구두 담이
 동생 열네살 김달복 장안
 화정 열네살 장안
 복자 열네살 장안
 상이 열네살
 생이 열네살

第四回 在日本 大韓總督敎團
 會는 新任任員과 謁士가 來會
 파같이 決定된것을 公示하고
 一設信徒의 倍前의 協力을 要
 請하는 바입니다.
 一九五二年十月十七日
 總會長 조기善
 總會長 趙其善
 副會長 李宗憲牧師
 書記 田水福牧師
 副書記 金德成牧師
 會計 金錫是長老
 副會計 曹聖律長老
 △治理局 △趙其善 ③李楨烈
 吳允台 李宗憲 田水福
 徐기홍 崔樂八
 △試取局 △朴弼燮 ⑤田水福
 南保斗 吳允台 趙其善
 △教育局 △丁仁壽 ⑤金元治
 金德成 金在和
 △傳道局 △安榮俊 ⑤卞錫全
 徐대환 田水福 林盛寬
 △青年局 △金元治 ⑤成丁禹
 金錫珍 安榮俊 金晚洙
 △婦女局 △南夫人 ⑤朴命茂
 李宗憲 金今만 韓奎奎
 △財政局 △崔正今 ⑤金在和
 金錫은 曹聖律 崔영모
 △總務局 △吳允台 ⑤卞錫全
 (以上)

크리쓰머스

수목 (직앞에서) 사과 껍질을
 얻어 놓고 밤을 굽고 있
 다. 연방 풍도에 부채질을
 하되 혼자 기쁜 얼굴로
 노대 부른다
 이날에 한가히 탄생하니
 예수탄일 예수탄일
 그누운 자리는 물구름새
 예수탄일 주탄일
 이상한 자리에 누웠으나
 귀보다도 귀한 애기사가
 만왕의 왕되신 주에 숭배
 예수탄일 주탄일...
 화실 (우편으로 동장)
 군밤 주세요
 (돈부러 내 본다)
 수목 화실이 왔니. 얼마나
 (돈 받는다)
 화실 이번엔
 수목 응 화실인 이뿐이니깐
 많이 주지
 (껍작 뒤의 밤을 몇알
 세어 준다)
 (三面에서 계속)

說教

새 사람

에베소 4:17-24

田榮澤

애국가 사회사업가 종교가 모든 지도자 선명하다 나라 일을하여 백성을 지도하는데 필요하고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새 국가도 소용없고 정치가 사회사업가나 종교가나 모든 지도자가 다 소용없다. 유대주의하다. 아모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니 오늘날 우리 현실이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아니라 신생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경업을 지나지 못하면 사회나 나라에 무익하고 유해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위하여 어떠한 인물이 되고 아무런 사업을 하든지 다 불매겠으며 아모리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그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일이 될 것이니, 그 중심의 만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당시에 유대 사람의 대표적 종교가요 70인 회의의 대의원인 니코메도나 교법사인 부자청년이 예수를 앙망해서 찾아온 사실을 보라.

(1) 대위 학자 「조크라에스」가 「먼저 나의 자신을 알아라」 한 말이 인류의 대선생이요 지도자의 큰 본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

리라」 하신 말씀은 진실로 구세주(救世主)의 대선언이시다 그리고 「네 자신을 알아라」 「거듭나라」 하는 교훈은 두 히 금일 우리들에게 대한 큰 경교가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애국자는 란다 「그러나 새 사람은 적다. 크리스찬이라고 육사라고 새 사람은 아니라 육신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길으로 보아서 훌륭한 신자요 목사라도 남 모르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새 사람이 아니다. 본노와 배합과 음란과 시기와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입에서 더러운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고 거짓 말을 천진히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은 새 사람이 그대로 있는 증거이다. 「한국 사람의 말은 9월 이상 7월은 길수 없다」 라는 것이 요새 외국인들의 말이오 사실상 「아모도 길수 없다」 라는 것은 이 요새 우리 사회의 진상이라면 어찌 큰일 나지 않았는가? 이제 가지고 무슨 건국을 하며 무슨 교회일을 할 것인가?

부사 정년은 예수께 나아와 선을 찾고 인생을 구송하였가 바느질에 서트른 사람이 많은 것이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분을 연마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14-15절에 있는 말씀을 잘 미독 하기를 바란다. 천분이 없는 것 비단할 것이 아니라 게으른 탓으로 가지고 있는 천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비단하여 한다. 우리가 가진 재간을 양상시키는데 필요한 지식을



放浪兒의感激
選擇의自由問題

(3)

羅曾男

그러나 선도 영생도 사업도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한국 발달수 없는 것이다. 불매되는 일이다. 먼저 옛 사람과 그 생위를 찾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나는 아모 어른을 목사님으로 믿었더니!」 그런 줄을 물았을 나다 하고 실망하고 기 꺾여하는 젊은이 少年少女들 나는 가끔 보고 열음이 과분하고 가슴이 새를 찔 듯하다. 과연 무서운 일이다. 새 사람이 못하고 지도자는 일야말로 참말 무서운 일이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다 나는 피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관해하시지 않으니 하시니 좋은 뜻한 성미가 있으나 그것이 에덴을 벗어난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와의 실락원의 생활(失樂園의生活)이라고는 깨닫지를 못하는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간섭없는 자유로운 세계인줄로 알고있던 에덴에서 번성한 인간은 하나님께의 진도의 홍수로 노아의 가족의 사람은 전멸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방임하신듯한 때가 하나님께 진노하시는데가 아닌가 두려워 하여야 할 때다.



學校講座
教師講
會教師

教師와 그準備 (2)

魯安理

(1) 교사는 개인으로 각기 독특한 천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축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일정한 종의 아동은 잘 지도할 수 있지만 다른 연령층은 할 수 없지만 있다. 이것은 물론 수차례의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얻어진다. 이

바느질에 서트른 사람이 많은 것이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분을 연마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14-15절에 있는 말씀을 잘 미독 하기를 바란다. 천분이 없는 것 비단할 것이 아니라 게으른 탓으로 가지고 있는 천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비단하여 한다. 우리가 가진 재간을 양상시키는데 필요한 지식을

는 본장 3절에 가서 말할 생각이다.

(6) 교사는 지체로워야 한다. 이 점은 누구보다도 교사 자신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 다. 사람을 취급하는 지체신임을 유지하는 지체 감동시키는 지체 이것은 모두다 교사의 것이이다. 다른 방면이 같으면 교사를 맡는 사람이 수록 더욱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생활을 많이 하지 않고도 좋은 마음과 좋은 교양을 가진 사람은 얼마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독서 남의 음악회 토론회 사색등은 모두 좋은 교양의 수단이다. 교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상상 출현하여 그 마음을 새롭게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효과 있는 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는 참된 열성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식 완성되지 않고 있는 방면을 찾아서 심는 남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남의 요구에 대하여 관심을 품으며 동시에 그를 돕기 위하여 몸을 바치는 일을 맡은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거든 지혹은 관심이 약하고서서서 성있는 지도자를 기대할 수 없다. (8) 교사는 무엇보다도 신실해야 한다. 훌륭한 천분과 또 높은

서는 안된다. 이 나 오만 화설
하다면 무슨 일인을 할 수 없
으랴! 필요한 대가를 주지
않고는 훌륭한 음악이나 기술타
이나 가정주부가 될 수 없는 것
이다. 그 대가는 경우에 따
라 많이 요구 될 것과 적게
요구 될 때가 있다. 대가야 많

田榮澤

없지는가 하는 사람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선한정
과 악한것을 택하는 절대자유
(간섭없는자유)를 주셨고 기
계와 같은 인간을 지으신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면
강제가 없을수가 없는것이이다.
하나님께서 자기형상으로 지
은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인격
이므로 대하지마는 인간들이
절대의자유를 남용하여 죄악에
차저할때 응징하시고 도타오
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주신

자유에는 아무도 간섭할 수
 다. 선택함과 약한것을 구별
 여. 선택하는 자유는 절대적
 자유다. 그렇기때문에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것이다. 우리
 간은 이 귀하고 귀한 자유
 약하고 되려는길에서 선택할
 힘없어야한다. 하나님의 진노
 불을 가다가 멸망하지말고
 닮고 도라서서 하나님의 영
 받받고 그 풍채 모양을
 고 하나님의 입마춤 받는
 라오는자가 되자.



徐相潤氏

윤씨(徐相潤氏)는 본래부터
결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이
로 양화제조를 하면서 삼정

에서 일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글들이 부두와 정거장에 나가서 오고 가는 사을 붙잡고 전도를 하여왔을 때, 당시에는 아직 집사 전도하는 서집사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다.

는대 자기 사업을 하는 의
회를 돕는 몸으로 심히 바
중에도 우리민족의 희망은모
사람이 곡을올 받아 외개하
예수를 믿는대 있다는 때다
과 동포들이 희망의 길로
러지고 있는것을 참아볼수
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날말
새벽기도에 나갔다가는 문
은 부두로 나가서 배안 사
에게 전도하고 자기손으로
히 많은 전도지를 주고 또
덕에는 복잡한 구마산 정거
에 나가서 갑박을 모르고
파하는것만 동포들을 한 사

[illegible]

한글의再認識 (4)

張 鳳 仙

5. 한글과 기독교

한글제정의 500년이후로 오는날까지, 한글의 보급에 막대한 공적을 끼친것은 기독교의 선교사업이다. 기독교는 본래 학식 가난한사람, 어려운 사람 무식한 사람에게, 무한한 동정을 가지는 만인평등의 사랑의 종교이다. 1881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한글로 번역되후,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선교사가 한국에 온후 1900년에 신약전서의 번역이 완성되고 1910년에는 구약전서의 번역이 완성되여 한글의 성경이 13도 방방곡곡에 퍼지며 무수한 한국민중이 문자적으로 심령적으로 밝은 빛을 보게되는 동시에, 문맹을 퇴치하였다 한글성경과, 찬송가, 공과, 신문잡지, 그밖에 성경주석, 신학서적등 여러서적을 합하면 그 수가 실로 놀랄만한것이며, 지금도 동경에서 매일 한글성경을 구걸자법이어나 인내하고있으니, 한글보급의 기독교의 위대한 공적은, 누구나 부정하지 못할 놀랄만한 공적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장로교회에서, 중국산동성에 각편을 받아 선교한 이대영목사는, 20여년전부터 산동성일대에서, 한글로서 중국어 성경, 찬송가, 신문, 잡지, 소중대학의 교과서, 신학교참고서등, 그밖에 여러가지 문서를, 한자만에 의뢰하고있던 중국인들을, 글자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중국의 문맹을 퇴치하며,

세계의 일대화제를 이끈 사실은,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진실로 한글은 금간산, 인삼과 함께, 세계적 삼대보물로서 그 우수성과 특이한 사명을 가지고, 세계문화의 금자람으로서 자당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 한글과 기독교는, 끊을려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와, 공동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받은지 불과 반세기 동안에, 이와같이 기독교가 철저히 발전한 나라는, 오직 우리 한국뿐일 것이다. 애국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기독교를 믿게되고, 또 믿음을 길러주며,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읽으려면, 한글을 배워야하며, 아모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기독교를 믿게되면, 성경과 찬송을 자유로 읽게되여, 무식을 면하게되였다. 기독교는 뒤떨어진 우리 국가와, 사회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큰 계몽을 한것이 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없어서는 아니될 존재이며, 기독교에 한글이 없어서는 아니될 존재이다. 이와같이 과거, 현재, 장래에, 한국문화에 부파된 기독교의 사명은 실로 중대한것이다. 신철자법에 뒤떨어진 성경과 모든 출판물과 한글연구와 보급에는, 누구보다도 숭선하여 철저히 실행하는것이 기독교의 최대의 임무일것이다

時感

共產主義와 宗教

J. E. F

「약한사람은 지옥에 던져질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되리라」 시편 91:17절

이상 시편의 말씀은 공산주의자들 또는 공산주의로서 그 공적을 삼는 모든 나라의 그 최종운명이 어떻게 될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세상에는 물론 공산주의자들도 약한사람이 많이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이와같이 대변의 위악과 괴고도의 도덕적 부패성을 나타내는에 있어서는 어느때보다나더는 인종을 물론하고 이들 공산주의자들을 파멸시킬것이다. 그들은 개척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서로 미워하도록 힘쓰는것이오, 또 몇천만 사람에게로 부리는 그들이 팔을 버리나 모든새살을 약탈해서 굶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로 파란가지 않으면 안만해도 할수없이 만드렸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인민재판소」라는것은 상상하기도 난직한 참수한 수괴로서 몇백만명 사람을 사살하였고 또 그밖에 몇백만명 사람은 감옥노예노동소에 보내서 거기서 굶고 열병고 또 병을어서 죽어버리게

詩

墓地行

姜 舜

사망의 하옥으로 가는 길이긴만
앞을 다두어 라련다.

.....라는 사람도
.....채 하는자도
이들 갈며
악을 악박쓰며
서로 자리를 메아가며
간다.

죽으려 가는이나

사는 성으로 속아가는이나
좀 더 더디기를 바라나
갈망하나

지구사발인 차는
제 힘대로만 달린다.

아 환혼이 참만루나

현대세계사의 초록급 「묘지행」은
노상 만원이다.



故

살이 쇠약한 사실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것이 공산주의의 근본적학설이 되어있으니만큼 이것은 파라서 眞(眞)인(眞)이(眞)에 대한 모든것을 부인하게되였다. 모든 위대한 종교들이 오랜세기를 통해서 보존하여온 영적가치는 그 전부를 다 잃어던지고 그 반면(面)의 영성을 가진 인간성을(性)을 잃어버린것이다. 이러한 국난의 위악이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사실과 같이 나타나게 된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로부터 먼저 하나님과 영의에대한 신앙심을 잃어 가지않고서 그들이 그렇게도 악해지

도록 만들수는 없는것이다. 이제 참된 공산주의의 사상은 물론과 교훈 가운데서 종교를 부인하는 구체적 실천을 살피보기로하자.

첫째로 一九五一年四月二十六일 금소몰스야지에는 이렇

게 써 있었다.

「많은 공산당원이 하나님을 믿는다는것은 상상할수없다. 이것은 양보할성질의것은 아니다.」 「인리는 참말은 영감을스칼런데에만 있을수있는

「그리고 동지 一九四七年十月十八일부에는
「공산당 대연중에는 한층
교직선전을 철저히 집행하
지 않는 「공산주의자」를 용납
할 여지는 없다. 누구나 동
교직관계를 맺어 있어 정산하
지 않는 자라면 공산주의자
연맹에 가입할 수는 없다」
문노도이 불히지 一九四
六년 제九一六호에는
「어느점은 공산당인으로서

國行

田榮澤

九월二十二일 오후 한시여
하네다에서 반가운 국기를 그
대 한항공회사의 C-47호를
타다. 소원일(孫元一) 대군총참
모장의 모친이오 고 손정호
(孫貞浩) 육사의 부임을 회인
것도 반가운 일이었다.
부산 고려신학교에 개시하는
선교부인한분이 한복으로 가시
는 길이라 나와 도성로와 세
사람은 기차의 사람이 되어 기
차는 어느덧 프른 하늘을 떠날
며 전구들위로 서으로 서으로
본 살 길이 달리니 대대일속
(大海一粟) 만도 못하고 어
성각하면 부유같은 내 몸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병상도 하고 신문도 읽는중
에 어느새 「이와구니」에 머물
렀다. 잠시 휴지에 내려서
어청 허리가 오렌지 향스한
담부를 마시고 다시 떠나서
종가다가 현해탄도 언제 지냈
는지 오후 여섯시반에 수영비
해장에 갔다대었다.
「전장이로구나」하는 것파 온
지가 과연 알구나」하는것이
새삼스금게 느껴졌다. 비행정
안의 탕크같은 군용차와 천막
들이 군에 띄이고 길가 울타
리 가시칠까지 온지에 덮인것
이 본능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날이 저물어서 희미한 등불빛
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양과
거리의 광명이 어떤 처음 보
는 시골 거리의 그것 같고
아무리 보아도 우리나라의 돌
크기는 큰 도시로 임시 수도
인 부산 같지는 아니하였다.
이름 날 나는 오라간만에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
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
면 그는 그책임을 어떤것이다」
「공산당의 기본이론이오,
「공산당, 해인주의의 철학
은 유물론중론은 종교로대
브러 비코할수없다. 공산당
의 세계관은 과학적 자료
에 의하엿지만 종교는 과학
을 반대한다. 공산당의
모든 활동이 과학에 근거
하였으니 만큼 우리는 동
교를 반대하지 않을수없다」
력주에 들어간 부산거리를 천
천히 걸었다. 어수선한 거리는
무슨 큰 종파나 공원을 구
은 거리가 있는것을 알하고있다.
가을이 되어서 등 영기가
나아할 사람들이 죽느러져서
영기가 없고 마지못해서 그날
그날을 지나가는듯한 자취가보
였다. 거리에 자유당에서 발표
한 벽보가 붙였길래 무언고하
고 들여다 보니까 전에 서울
부윤으로 있던 「후루이저」(古
市)이라는 사람이 비밀이
국내에 잠입하였는데 그것이
국무총리 장태상(張澤相)과와
관계있다고 해서 그를 공격하
고 탄핵하는 것이다. 물어본즉
사실은 사실인데 자유당과 장
태상의 과거당시의 정당관계
의 싸움이라고 한다.

영국국장 김형근씨와 기독교
보사에 둘러서 김성문장로와
무심히 지나가신 아부님 오
글도 부산에는 비가 내리고
있읍니다.
주일 오후 중요한 시간이라
날 늦으리 없건마는 문득요란
한 문소리에 일어나하고 나가
보았더니 뜻밖에 아부님의 눈
빛을 전해주는 반가운 초센지
무슨일에 얼마나 골몰하시면
외로운 저를 찾지도 않으시고
떠나셨는지요!
아부님 저는 외로움이 이다
지도 쓰라린줄을 몰랐소요 저
는 때때로 그의 손에 사토잡
혀 땀작 못하고 땀을 흘리며
해져지오
아부님 저는 오다가 병상의
몸이되어 여러날 누어 있으면
서 아부님을 얼마나 생각하였

隨筆

孤獨

은지오
아부님은 저를 잊어버리었다
심심한 생각에 눈물이 흐를
가리기를 몇번이나 애는지오
고 새것이 거절했읍니다.
아부님 저는 아부님도 저를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차라리
아부님의 사랑의 줄까지도 끊
어서기를 원해요 인간의 인연
의 금실 음실이 마지막으로
근어전때에 참고독에 빠진 그때
에 주님은 영원한 팔 능력의
손을 펴서 저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그손에 그팔에
제 전부를 맡기읍니다.
第45號 本詩「마음의 제
訂正 단」作者「박철원」은
「박철원」입니다.

은지오
아부님은 저를 잊어버리었다
심심한 생각에 눈물이 흐를
가리기를 몇번이나 애는지오
고 새것이 거절했읍니다.
아부님 저는 아부님도 저를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차라리
아부님의 사랑의 줄까지도 끊
어서기를 원해요 인간의 인연
의 금실 음실이 마지막으로
근어전때에 참고독에 빠진 그때
에 주님은 영원한 팔 능력의
손을 펴서 저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때에 저는 그손에 그팔에
제 전부를 맡기읍니다.
第45號 本詩「마음의 제
訂正 단」作者「박철원」은
「박철원」입니다.

福音醫院開院

本醫院은醫療傳道를目的하고開設
內科、小兒科、外科、內臟外科、産婦人
科、皮膚科、性病科、各科擔任醫師完備
一、治療時間
午前九時—十二時
午後一時—五時
午後六時—九時
往診隨時宿直醫師二人有
一、特別健康相談部
1、兒童健康相談部
毎月第二、四木曜日
自午後六時—至八時
相當醫師元京都府立醫科大學教授
醫學博士 三宅 廉
2、結核相談部
毎月第一、二、三、四木曜日
自午後五時—至七時
擔當醫師 醫學博士 長岡弘道
場所
大阪市東淀川區南方町九〇九ノ四七
(前南方教會堂)
但阪急南方驛前徒歩約二町



故郷の味覺を...
食道園
大坂名物 元祖 食道園
大坂、千日前、電話(45)5247